

愛酒家の適宜方

徐 錫 培



醫學入門이나 東醫寶鑑等 古書에서 술(酒)에 대한 폭넓은 提示가 없었던 것은 그 당시만 하여도 現世와 같이 술(酒)의 文化가 복잡다단하지 않은 緣由라고 본다.

술(酒)이란 氣는 熟하고 味와 質은 苦하고 찬(寒) 物質이라 술을 마시게 되면 氣가 上昇하여 顔面이 熱을 받아 붉게 되고 氣分을 자극하지만 시간이 지나 氣가 消失되면 質만 남아 腸이 차(寒)지고 下體가 힘(氣)이 빠져 步行이 불편하다

그러나 술을 적당히(적게) 마시면 氣의 作用만 하게 되어 氣나 血液순환을 원활히 하게 되어 藥理作用을 하지만 문제는 過飲하는 데 있다. 그래서 古書에도 “酒通血脈 上行性 小飲壯神過損命”(적게 마시면 神命을 더 하고 過飲하면 損命한다)이라 하였다.

酒家가 아닌 분께서는 다른 각도로 표현하겠지만 술을 적당히 마시고 이용하면 氣와 血의 순환을 이롭게 하여 우울증 환자에 이롭고 술은 社交와 浪漫이 있고 괴로움을 잊게 하는 妙漢이 될 때가 하다하다.

그러나 술(酒)은 毒性이 있어 少陰하게 되면 그毒이 人體에 逆으로 有益한 藥理作用을 하지만 少飲이 容易하지 않은 술의 특이한 습성때문에 항상 피해를 보게 된다.

過飲하게 되면 人格的으로나 精神의被害는 論하지 않더라도 그毒이 人體에 蓄積되어 胃나 腸이 그리고 肝이 그 毒을 解消하지 못하여 各種疾病을 誘發하게 된다.

筆者도 愛酒家の 一員으로서 술의 被害로 말미암아 많은 苦心과 適宜方을 考案하여 보았다.

술은 어느 部位보다 胃腸과 肝에 그 被害가 나타나기 때문에 胃腸에 有益한 人蔘 養胃湯 그리고 酒毒을 除去하는 葛根 白篇豆를 加하여 胃와 腸을 溢補하고 肝도 被害를 보았으니 小柴胡湯에 茵陳倍加하여 合方投藥하면 술로 被害를 본 愛酒家에 最

■ 愛酒家の 適宜方

適宜方이 될 수 있다.

多幸히 肝에 被害가 없으면 人蔘養胃湯에 葛根 白扁豆 加味方으로 충분하지만 肝에 侵害하였으면 加味小柴胡湯合方이 꼭 필요하다. 가령 酒家가 아닌 단순 肝炎환자도 위의 養胃柴胡合方藥을 投藥하면 특이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先賢들의 治肝에 先實脾土의 原理에 합당하기 때문에 肝炎환자에 此方을 投藥하여 많은 효과를 본 예를 소개한다.

만약 胃潰瘍의 증후를 검할 때 元肉 牡蠣粉을 加하여 쓰고 鹿茸을 加하여도 좋다.

• 方 . 白朮 柴胡 各12g 陳皮 厚朴 黃芩 8g 白茯苓 人蔘 半夏 6g 草果 甘草 各4g 生于 大棗 6g 茵陳 16g 葛根 12g 白扁豆 4g 青皮 2g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134-2 天佑堂韓藥房 ☎ 061-363-2609)